

# 민주 “尹 순방, 총체적 무능 보여줘…그런데도 용비어천가”

### “순방, 총체 무능…참사 인정 않고 거짓말”

### 대통령 사과, 외교라인 전면 교체 등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 “실패한 순방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5일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순방은 총체적 무능을 낳는 것으로 보여졌다”며 “외교 참사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제 국민의 냉정한 평가”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으니 한숨이 나올 만큼 한심

하다”며 “이번 순방 핵심 과제였던 한미 통화스와프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는 다뤄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환율은 1400원을 훌쩍 넘어섰고 잡힌 다윈 물가는 하늘 높을지 모르고 오르고 있다. 연말에 담보 대출 금리가 8%를 바라볼 거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생 위기에 신음하는 국민을 생각했다면 이렇듯까지 부실한 순방 외교를 할 수 있었겠나”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국민은 무능과 거짓으로 점철된 윤 정부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실패한 순방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논란만 남긴 이번 순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외교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를 추진하라”며 “남 탓이나 하며 한가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 국민은 무능한 정부를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순방 관련 비판 목소리를 지속해 내고 있다. 특히 비숙어 논란 등을 조명하면서 공세 강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순방 관련 내용이 향후 대정부 대응 주요 대목으로 다뤄질 분위기도 읽힌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얘기했는데 이번 외교 참사 이후, 외교 순방 이후 거짓말에 대한 비판 강도가 세질 것”이라며 “국정조사, 특검도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순방 관련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전반적 내용 부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련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민주당 차원의 순방 관련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만나 의견 교환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현안 질의를 하면서 다각도로 대응할

것으로 안다”, “여론전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순방 관련 논란을 두고선 이재명 대표가 온라인상에 남긴 게시물도 화제가 됐다. 이 대표는 전날(24일) 페이스북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을 겨냥한 언급이란 해석이 많았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채 5개월이 안 됐는데 공정과 상식, 의로움과 믿고 불의의 모습이란 게 민주당 판단”이라며 ‘이번 순방 외교에서 마지막에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을 보고 이래선 안 되겠다. 불의하단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최이슬기자

## 당정 “역대 최대 쌀 45만t 격리…스토킹 처벌법 중점추진”



“野 양곡법, 공급과잉 등 부작용 크다”

당정은 25일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고 정기국회에서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및 보이스포싱 근절 방안을 중점법안으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박정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고위당정협의회는 격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금년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 총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으로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 추가했고,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쌀 과잉 생산분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추진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선 45만 톤 규모 대규모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권성동 의원이 언급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정은 또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 인식하고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 및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도 엄정 대응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당정은 민주당 추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법)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없는 정의행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위헌 논란과 민법상 형평성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다”며 “기업 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 파업·갈등조정 등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소위 노란봉투법은 법률 충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언론인과 국민 대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충분히 많이 갖기로 우선 당정이 협의했다”며 “예를 들면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단체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처벌에 대한 규정, 원·하청 노조 문제 이런 게 다 관련돼 있어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포함됐다. 다만 구체화된 법안은 구성 중인 것으로 보인다. ‘대포폰’ 개통 차단 본인확인 절차 강화, 비대면 계좌 대책 마련 등이 당정간 논의 방향이다.

당정은 금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9월 대출 만기연장조치가 종료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연장과 상환 유예 시행과 코로나19 피해 계층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10월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향후 고위당정을 격주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서 실무 당정협의체를 신설해 운영에 착수했다.

김재환기자

## 정영균 도의원, 수산직불제 활성화 강조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최근 제365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결산심사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수산직불

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산자원 보호 수산직불제 사업’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수산보호 의무사항 준수 여부에 경영비의 일부를 직불금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TAC 준수를 기본으로 어선 감척, 휴어기,

생분해성 어구사용 등 2개 이상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이다.

정영균 의원은 “100% 국비사업인 수산직불제 사업의 불용액이 '21년 기준 15억 원에 달한다”면서 “근본적으로 TAC 제도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실제로 TAC 요건 충족에 대해 많은 어업인들이 경영 압박을 느껴 ‘수산자원보호 수산직불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TAC 업종별 의견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는 한편, 수산직불제 어떤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尹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마치고 귀국

### 이상민·정진석·주호영 등 환영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5박7일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탄 공군 1호기는 이날 오후 9시7분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한 모습으로 1호기에서 내렸다. 김 여사는

회색 체크 재킷에 흰바지 차림이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 조현동 외교부1차관, 이진복 정부수석 등이 대기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손을 잡고 트랩에서 내려와 환영인사들과 악수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뉴시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